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2년 8월 제269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휴양형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서경원 편집인 : 이석호 인쇄인 : 임헌표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신바람 절로 나는 멋진 충기인 한마당 잔치"

올 10월 22일 모교 운동장에서 한마음축제 개최 준비 박차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가을 동문축제인 총동문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해 아쉬웠다. 다행히 올해 10월 21대총동문회 집행부가 한마음축제를 추진하면서 동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한마음축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충남기계공고 졸업 동문 전체는 물론이고 재학생,모교 교사,은사님 그리고 동문가족이다.

이재일 추진위원장은 "기존의 총동문체육대회를 대체하는 동문화합 한마음 축제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풍성한 먹거리,푸짐한 상품 을 준비하고 있다"며 "신바람 나고 박수가 절로 나오는 가장 멋진 한마당 잔치를 위해 깜짝 놀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만큼 전국 방방곡곡 지역 동문회를 비롯하여 기수별, 직장별,직능별,소모임,산하단체의 모든 동문들은 꼭 참석하시어 못다 한 정을 나누시고 충기인이라는 높은 자부심과 찐한 우정으로 멋진 축제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가을축제가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한마음축제가 열린다(사진은 제31회 총동문체육대회 모습)

※2022년 한마음축제 추진위원회
▲대회장=서경원 총동문회장(15회. 010-5455-7531) ▲추진위원장=수석부회장 이재일(15회. 010-5403-7410) ▲추진위원=사무총장 임헌표(8회. 010-5477-9218), 사무국장 홍준용(25회.010-8939-5708), 복지국장 김성기(24회. 010-8582-0371), 재무국장 공대성(34회.010-5404-7784), 사업국장 권오진(31회. 010-5407-8780), 홍보국장 김정규(35회. 010-9240-3557), 조직국장 권경중(26회. 010-3588-4135) ▲동문회 사무국 송예경 총무(042-252-5656)

–이석호 편집위원장 –

월 1만원 모교사랑 동문사랑 자동이체캠페인 호응 확산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간 동문회보를 발행하고 있는 우리 충기동문회가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동문회 안위를 걱정하시는 고문님들의 솔선수범으로 시작된 '월1만원 모교사랑 동문사랑 자동이체캠페인'이 동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의 21대 집행부는 고문들의 월 1만원 자동이체 후원 결정에 크게 고무되어 이 캠페인이 범 동문 전체로 확대 되게끔 동문회 차원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책임자로 홍준용 사무국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추진위를 구성하고 권오진 사업국장 김정규 홍보국장이 적극적으로 보좌하며, 총동문회장 이하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각 실무국장 등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0명 돌파라는 목표를 가지고 문자와 전화로 연락하고 있는 중이다.

홍준용 사무국장은 "'월1만원 모교사랑 동문사랑 자동이체캠페인 '이 성황리에 진행되어 누적 100명의 돌파를 앞두고 있다"며 "바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일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사무국장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각 기수 회장을 모시는 자리를 만들고, 순차적으로 지역, 산하단체 동문회의 회장도 초청하여 한마음이 되는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 1만원 자동이체 캠페인에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용 사무국장의 고심은 날로 커진다. 경기도 화성에서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문회 일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동문회 일은 흔한 말로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잘하고 욕먹기로 했단다. 1000명의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인가 아니면 시기상조인가. 현재 100명 안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절반에 성공일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의로움을 보여야 할 때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각자 동문들은 개인의 목소리를 내야하고 또한 모두가 들어주는 시대다. 개인의 품격은 존중 받아야 한다. 누구의 동문회가 아닌 모든 이의 동문회다. 한 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동문회가 절대 아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년 동문회 살림살이를 책임질 집행부는 나올 수 없다.

이번에 캠페인을 통해 가슴이 따뜻해 오는 소식이 있었다. 어려운 경제형편임에도 동문회보 연회비 2만원을 보내온 어느 선배님은 기초수급자였다. 받은 돈 10%를 떼어서 보낸 것이다. 충기인이라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다.

<후원계좌 :
농협 351-0214-2218-53.
예금주 :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

“자동이체캠페인은 동문회 살리는 백년대계 초석”

총동문회 21대 집행부 임원모임서 동문화합 결의 다져

21대 집행부는 8월 12일 오후 4시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돌다리청림가에서 임원진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월1만원 모교사랑 동문사랑 자동이체 캠페인’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용 사무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21대 집행부에서 역점사업으로 펼치는 월1만원 자동이체 캠페인이말로 분열된 동문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동문회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임을 분명히 인지하여 임원들이 발로 뛰자”며 “현재 100명 안팎 동문이 동참하였고 모범을 보여준 집행부와 설송회, 21회동문회를 비롯한 모든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홍준용(25회) 추진위원장은 “앞으로 각 기수 회장들을 모시는 자리를 시작으로 지역, 직능, 직장, 산하단체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위해 집행부 국장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동문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며 “각종 행사나 세부 사업계획은 주무부처에서 순차적으로 공지하고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끔 동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상의 선택을 하여 동문회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회장이 홍준용 자동이체캠페인 추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한편 이날 21대 집행부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3년 3월 31일로 분명히 하여 그동안의 혼선을 정리했다.

– 총동문회 김정규 홍보국장 –

모교사랑 동문사랑 자동이체 캠페인 적극 호응

설송회 회원 전원 신청 모범 보여

총동문회 모임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모임 중의 하나인 설송회(회장 천명재)에서 ‘월1만원 모교사랑 동문사랑 자동이체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천명재(12회) 회장의 주도아래 전 회원이 뜻을 같이하여 회원 100%가 동참했다.

설송회는 총동문회장을 3명이나 배출한 모임으로 천안에서 열린 총동문골프대회를 주관하는가 하면, 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 선수단 지원을 하는 등 그동안 총동문회 및 모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 지원해온 바 있다.

천명재 설송회 회장은 “비록 타향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모교와 동문들의 소식이 궁금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여 서로 도와주는 충기 동문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설송회 월1만원 자동이체 신청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임세환 ▲ 전종현 ▲ 박대균
▲ 김창길 ▲ 김종수 ▲ 김병갑
▲ 윤성덕 ▲ 김은철 ▲ 여명찬
▲ 김병무 ▲ 김윤태 ▲ 조성서
▲ 이강수 ▲ 김기용 ▲ 천명재
▲ 라기원 ▲ 정기채

〈알림〉 서울동문회 9월 정기모임

서울동문회가 지난 7월 9일 창립했습니다,
9월 두 번째 모임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22. 9. 24(토) 오후 5시
▲장소 : 추후 공지

서울동문회장 윤 봉 중 (12회. 010-3601-0774)
사무국장 송 석 진 (21회. 010-3485-7703)

동문소식 제보 안내

문회수별 및 단체 동문 소식과 개인동정을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전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한 달 돈 만원으로 나는 고독사를 면했다”

배기룡 동문(3회) 자동이체캠페인 동참 글

남은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충기면 됩니다. 별거 아닌 일을 너무 깊게 파고들어 더 어렵게 만들고 비비 꽈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고 죽겠다고 오만신경 다 쓴들 일이 해결되겠는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될 일도 안 되고 고통만 가중될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을 가지고 생각이 많아서인지 습관처럼 나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니 정신은 아직도 어린네요, 신체나이는 열 살이나 위에 가 있다.

경기북부동문회 모임에서 건배를 제의하는 배기룡 동문

내 주변인들을 보자.

꼬장꼬장하고 괴팍하고 고집불통이는 뇌출혈로 대부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 요지부동에 주변은 떠나가고 내 몸은 썩어 가고 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웃는 사람들은 얼굴도 늙지 않고 나이 70에도 오빠부대를 거느리고 등산을 하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만 번 씩 순간순간 판단을 하는 인간의 뇌는 “행복하다” “행복하다”외치면 행복을 주고, “된다 된다”하면 꿈을 이루어 준다.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행복한 소식이 찾아왔다. 한 달 돈 만원으로 나는 고독사를 면했다. 한 달 돈 만원으로 난다 긴다 하는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한 달 돈 만원으로 송두리째 바뀐 요소 중에 으뜸은 잊고 살았던 고교시절의 향수였다. 담담한 마음으로 또 다시 맞는 새로운 인생길… 내 삶은 비로소 존엄이었다

“모교가 있어 오늘의 내가 있다는 마음 잊은 적 없어”

테크노충우회 올해도 모교 후배에게 장학금 1천만원 전달

테크노충우회(회장 최동준)는 올해도 어김없이 모교를 방문하여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테크노충우회 최동준 회장과 홍열표 총무는 지난 7월 13일 모교 교장실에서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은 테크노충우회가 500만원, (주)로봇엔지니어링(대표 최동준)가 500만원을 내어 총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대덕구 테크노공단지역에서 모범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동문들은 항상 모교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후배 돕기에 나서고 있다.

장학금을 전달한 최동준 테크노충우회장은 “모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마음을 항시 잊은 적이 없다”며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항상 발로 뛰시는 모교 이종업 교장과 교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장학기금으로 후배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한국의 미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업 모교 교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잊지 않고 해마다 힘든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 감사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꿈꾸며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동준 테크노충우회장, 최영미 교감, 이종업 교장, 홍열표 총무.

올 10월 울릉도 회갑여행 등 결정

17회동문회 8월모임 자동이체 적극 동참

17회 친구들이 화기애애하게 하트 손동작하며 우애를 나누고 있다.

매월 17일은 17회 동문회(회장 윤영문) 모임 날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무조건 만난다. 8월 17일 17회 모임은 22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태평동 5거리 태평족발 식당에서 언제나 그렇듯 술 한 잔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모임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 회갑여행(울릉도 10월 8~10일 추진)을 결정했고, 박장춘 회원의 자혼(9월17일 BMK 13시)을 공지했고, 졸업40주년 행사 추진을 논의했다. 또한 총동문회 기금마련 월 1만원 자동이체 캠페인에 즉석에서 정관성 오명진 안경헌 전창일 백준현 송성호 양희곤 민운기 친구 등 8명의 참여의사를 받았고 방법을 공지 해주기로 했다.

– 민운기 17회동문회 총무 –

대전역 동광장에서 사랑의 밥차

“동문여러분 봉사와 후원 감사드려요”

대전역 동광장에서 사랑의 밥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계과 7회 김상용 입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많은 동문 여러분이 봉사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밥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도 열악하고 후원과 봉사자도 부족 합니다. 옛말에 적선지가는 필유여경 이라고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희망나눔 라자로 급식봉사단 (사랑의 밥차)

운영위원장 김상용 010–5439–9053

“먼곳에서 친구가 오니 반갑지 않은가”

15회동문회 계룡산 동학사에서 모임

15회 친구 23명이 동학사 인근에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5회동문회(회장 이재일)는 8월 15일 계룡산 동학사 인근 감나무집에서 반가운 친구들과 함께 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함께 했다. 특히 이날 먼 길을 마다 않고 경남 창원에서 신서근 친구, 경기 파주에서 최기춘 친구, 경기 안양에서 육정관 친구, 금산에서 김호왕 친구가 동참하여 참으로 반가웠다. 문득 논어에 나오는 유붕자원방래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구절이 생각난다.

타향에서 사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한 김성, 유정식, 민세기, 윤현국, 이병걸 외 대전지킴이 친구 16명친구들도 만나서 반갑고 고마웠다, 친구들은 광복절날 모임을 계기로 15회 모임이 더 발전하고, 총동문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자고 다짐했다.

– 이재일 15회동문회장 –

“총동문회 발전기금 즉석에서 100만원 기부, 추후 지원 약속”

테크노충우회 동문기업인들 서경원 총동문회장 초청 점심모임

최동준 테크노충우회장이 서경원 총동문회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테크노충우회 회원들이 점심을 나누며 유쾌한 분위기로 담소하고 있다.

동문들 간에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는 테크노충우회(회장 최동준)는 8월 10일 대덕구 구즉에 소재한 한식당에서 서경원 총동문회장을 초청하여 점심식사 모임을 가졌다.

이날 테크노충우회 동문들은 정기모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동준(21회) 회장을 비롯해 차형철(11회), 도중갑(13회), 백두현(13회), 황순찬(13회), 김진필(22회), 홍열표(23회), 최병무(23회), 전우창(33회) 회원이 참석하여 서경원 총동문회장을 반갑게도 맞아주었다.

이날 점심 모임에서 최동준 회장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흔쾌히 100만원을 내어주었고 향후 테크노충우회에서는 별도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항상 열정적으로 총동문회의 발전과 동문 화합에 기여하고 있는 테크노충우회 동문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며 “테크노충우회 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동문화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 홍준용 총동문회사무국장 –

21회동문회 동문사랑자동이체 적극 동참

1차 28명 신청, 2차로 추가 접수 독려나서

모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 지원해 온 최동준 21회동문회장이 이번에 총동문회에서 추진 중인 “월1만원 모교사랑 동문사랑 자동이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자는 제의에 따라 21회 동기들이 뜻을 같이하여 전 회원이 참석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회동문회는 8월 15일까지 1차로 명단을 접수하고 8월 16일부터 2차로 명단을 받고 있다.

21회 자동이체캠페인 신청자는 1. 최동준(회장) 10만원, 2. 신병관(수석부회장), 3. 정구철(사무국장), 4. 진춘식(자문위원), 5. 임동현(자문위원), 6. 오주철(자문위원), 7. 유서열(감사), 8. 유호문(감사), 9. 김용근(행사팀장), 10. 채성준(홍보팀장), 11. 안중근(조직팀장), 12. 한석원(재무팀장), 13. 이경수(기획팀장), 14. 박영준(다듬질회장), 15. 박원종(선반회장), 16. 정종배(밀링회장), 17. 황희원(설계회장), 18. 함영일(배관과회장), 19. 문길수, 20. 이승기, 21. 이현철, 22. 이규필, 23. 장홍석 10만원, 24. 오흥석, 25. 배대철, 26. 신흥균, 27. 이재현, 28. 장명국 동문이다.

– 정구철 21회동문회 사무국장 –

〈알림〉 총동문회사무실 공사로 당분간 문닫아

모교 기숙사동에 위치한 총동문회 사무실이 기숙사동 내진설비공사로 8월 16일부터 한 달 반에서 두 달 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송예경 총무가 재택근무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용무가 있는 동문들께서 기존처럼 총동문회 대표전화(042-252-5656)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 성원해주신 동문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요즘, 총동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걱정하여 발전기금을 성원해주신 동문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총동문회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총동문회장 서 경 원 올림

장태산 자락에서 친형제처럼 지내

기성동문회 8월모임 서경원회장 참석

기성동문회 회원들이 서경원 총동문회장의 제의로 건배하고 있다.

장태산 자락 서구 기성면에서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기성동문회(회장 안주현 10회) 모임에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참석해 담소를 나눴다. 8월 10일 모임에는 송주영, 송석구(1기) 고문님과 김용춘 7회 선배님 등이 참석하여 우의를 다졌다.

이날 모임에서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그동안의 총동문회 상황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동문들의 화합과 기성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안주현 기성동문회장은 “그동안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서경원 총동문회장의 집행부가 화합을 위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에 안도한다”며 “앞으로 총동문회의 안정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훈 기성동문회홍보국장 –

“여기는 판문점 비가 내린다…맑게 개인 통일의 날은 언제 올까”

〈임동현 동문 판문점 견학 후기〉 분단 현장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감격적인 판문점 방문에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만세를 불렀다.

도보다리에서 남북한 두 정상의 파격적인 회담모습이 엊그제 같다.

2020년 8월 2일 판문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설레임이 반이고 착찹함이 반이다. 일본의 제2차 경제 도발이 현실이 되고 매스컴에서는 하루 종일 온통 이 얘기뿐이다.

판문점도 남북 분단도 일제 강점기 36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다. 일본의 도발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되고 이 전쟁의 패전국이 된 일본.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고도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일본을 두 동강 세 동강 갈라놓아도 모자랄망정 어찌 우리가 이 참담함을 또다시 겪어야 하는가? 미 · 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북은 각기 다른 정부가 구성된다. 하필 오늘 또 일본의 경제 도발이라니 분통 터지고 아이러니 하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파온다.

오후 3시10분경 버스는 경찰서를 떠나 통일로로 접어 들었다. 30여분을 달려 통일대교에 도착하여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다. JSA에서 다시 제시되는 신분증 확인 또 확인을 거쳐 안보교육관으로 향한다. 고요한 농촌 마을 널문리가 판문점으로 지명이 바뀌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게 된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아! 판문점이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교차된다.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비극을 함축하는 상징의 장소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맑게 개인 통일의 날은 언제일까?

우리가 우리 땅에서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강대국들에게 강권으로 조차당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 하던 곳이 아니었던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판문점의 관리 운영 작전권을 우리가 찾아 왔다는 점이다.

헌병들의 안내가 시작된다. 자유의 집을 들렀다. 나오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딱 하고 나타난 장면은 실로 충격이였고 장관이었다. 내 발치 앞에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곳이 북녘이라니... TV를 통해 익히 눈에 선한 곳이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 위원장이 걸어 내려오던 계단이 보인다. 남북정상이 북미정상이 한미일 정상이 손잡았던 모습들이 순간순간 어제 일처럼 머리를 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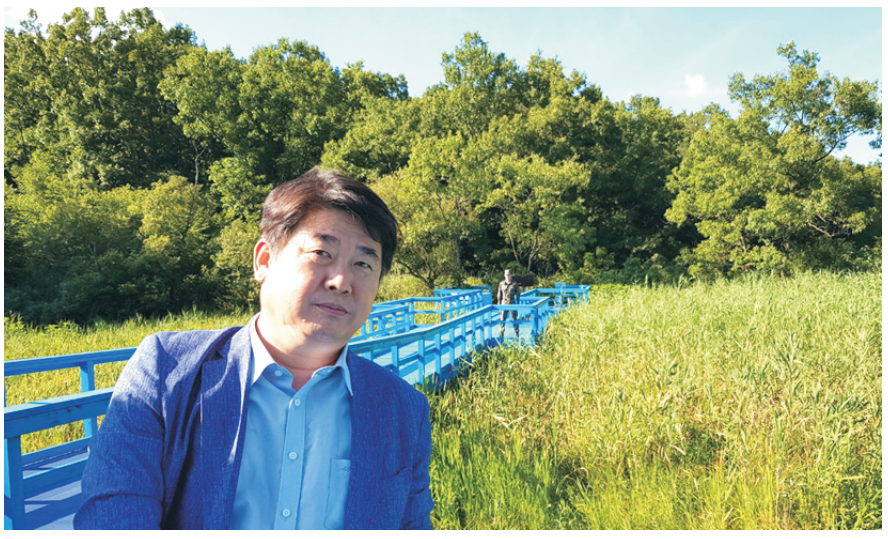
판문각이 각인된 커다란 건물 앞에는 북한 군인들이 보였다가 이내 계단을 올라가면서 사라진다. 이후 판문점을 떠나오기 전까지 북측 병사를 볼 수 없었다. 판문점이 더 이상 긴장과 대립의 장소가 아님을 보여주는 듯 하다.

방탄 헬멧에 선글라스 끼고 총기 차고 병사들이 서로를 응시하며 부동자세로 서있던 TV에서 본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다. 권총대신 무전기를 휴대하고 헬멧대신 모자를 쓴 모습에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평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판문점내 모든 탄약 화기를 철수하고 말 그대로 진짜 비무장 지대로 탈바꿈 되었다. T2 회담장에 들어섰다. 테이블 탁자 위로 남북의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간 정전협정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등 70여 년간 남북의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곳 역사의 현장이다.

도보다리는 평화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온통 파란색으로 채색되었다. 파란 도보다리를 남북정상이 배석자 없이 함께 걸으며 마주 앉아 대화했던 곳…

이제 이곳은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워낙 파격적이고 신선해서 그랬나 보다. 2018년 4월27일 두 정상의 만남이 내 머리 속에는 엊그제 인 것만 같이 스쳐갔다. 평화와 번영를 추구하고자 두 정상이 기념 식수한 소나무의 풍성한 가지를 보면서 한 민족의 융성을 기원해본다.

기사 6면으로 계속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해보았다.

낸시 펠로시 미국하원의장이 방한하여 올해 8월 6일 판문점을 방문했다.

남북정상이 2018년 4월 27일 기념식수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

“34층 고층아파트 단지 건립되면 교육환경 크게 훼손 우려”

모교 인근 문화동8구역재개발 동문TF팀 구성 1차 회의

모교 인근 문화동8구역재개발 동문TF팀이 구성되어 회의를 하고 있다.

문화동8구역재개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감도.

모교 후면 뒷편에 34층 고층 아파트가 추진 중이어서 총동문회를 비롯해 뜻있는 동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총동문회와 학교측은 문화동 제8구역 재개발관련 TF팀<14회 이종업 교장, 15회 서경원 총동문회장, 13회 강현용(재개발사업), 15회 이정원(토지), 16회 백홍기(변호사), 18회 정창희(건축), 31회 권오진 총동문회사업국장(간사)>을 구성하고,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 모교 교장실에서 이종업 교장, 서경원 총동문회장, 정창희 동문과 권오진 간사 등 4명이 참석하여 재개발 관련 사항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했다.

모교 바로 뒤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일조권 피해는 물론 보문산 전경이 사라지는 등 후배들의 면학 환경이 크게 훼손되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동문들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강력하게 아파트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통보서의 의하면 2020년 11월 13일 심의대상이 이루어졌으며 심의결과 문화동 8구역 주택사업정비사업조합 사업자 대상자에게 승인이 이루어졌다. 다만, 조건부 승인으로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모교와 업자 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동문회에서 TF팀을 결성한 자문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동문들은 TF팀으로 연락하기를 기대한다.

권오진 간사 (010-5407-8780)

임동현 동문 판문점 견학 후기기사 5면에서 계속

사진을 찍다가 판문각 쪽을 보게 되었다. 판문각 누각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많은 북측 관광객을 보게 된다. 일전에는 미국 유럽 등에서 많이 찾았는데 안보리 제재국면인 요즘은 중국인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유의 집 앞마당으로 이동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 장명기 상병에 대한 묵념을 하였다. 1984년 소련 기자 바실리 마투조크(Vasily Matuzok) 망명 시에 그를 쫓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온 북한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산화했다는 설명을 듣는다.

장 상병의 살신성인 ‘투쟁’으로 소련 청년 바실리 마투조크는 자유를 얻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소련으로) 절대 안돌아간다”고 했다. 현재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에 들렀다. 남북을 잇는 가교의 장소다. 남북이 서로를 왕래하면서 통관 절차를 밟는 곳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도 남북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보여주는 ‘출경’ ‘입경’이라는 가슴 뭉클한 글자를 보게 된다. 서로를 다른 국가라 생각했다면 ‘출국’ ‘입국’이런 표현이 맞을 것이다. 남북의 평화경제야말로 일본을 뛰어넘고 세계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대통령은 비장한 각오를 전한다.

미래학자들이 2050년 세계 1등 국가로 대한민국을 얘기하듯 남북은 이제 빠르게 평화 공존공영 시대로 달려 나가고 있다. 한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통일을 앞당기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다이나믹 코리아는 지구촌을 리드 할 것이다. 대한해협 저 멀리 섬족들에서 받은 수모는 반드시 갚아 주어야 한다. 아니 갚아 줄 것이다.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한 날이다. 머리는 뒤죽박죽이었다. 두통약을 먹어가면서 버틴 하루다. 어찌나 혼자만 아팠을까? 온 국민이 저들에게 받은 수모에 치를 떨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하게도 판문점을 통해 변화를 보았고 평화의 현장에서 희망을 가져 보았고 위로를 얻었다.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음을...

자리를 만들어 주고 같이 동행 해준 군·경 보안요원들과 보안협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임동현 경기북부 기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좋은 성적 기대”

서경원 총동문회장 모교선수단에 격려금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이종업 교장에게 전국기능경기대회 격려금을 전달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8월 23일 모교를 방문하여 경남창원 인근에서 열리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모교 기능부 선수단에게 총동문회 격려금을 전달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은 “방학 중에도 기능부 선수들 지도를 위해 노력하신 지도교사 분들과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전통을 살려 이번 창원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경남 창원 일원에서 8월 29일(월)부터 9월 5일(월)까지 8일간 창원컨벤션센터 등 8개 경기장에서 폴리메카닉스 등 53개 직종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자웅을 겨룬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선수에게는 직종별 1위(1,000만원), 2위(600만원), 3위(400만원)에게 각각 상금이 수여된다.

1위는 고용노동부장관상, 2~3위는 한국위원회 회장상이 주어지며 1위 입상자 중 우수자 2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시상한다.

– 권오진 총동문회사업국장 –

수입 현황

기간 : 2022년 7월 28일 ~ 8월 25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상	1	김재찬	50,000
광	1	나무찬	20,000
방	1	박만영	20,000
상	1	오응수	10,000
광	1	윤석원	20,000
자	1	윤영호	20,000
방	3	박성하	20,000
자	3	박양진	20,000
전	3	송의석	20,000
전	3	오성민	20,000
방	3	윤백현	20,000
전	3	이용주	20,000
전	3	이우정	20,000
광	3	임헌호	20,000
전	4	라상원	20,000
전	4	박주국	20,000
방	4	송석범	20,000
전	5	오완세	20,000
전	7	강석근	20,000
전	7	김윤곤	50,000
광	7	문경동	20,000
자	7	신상호	20,000
광	7	이동승	20,000
전	8	손월호	20,000
전	8	신의중	20,000
전	8	이당원	20,000
전	8	이정권	20,000
자	8	이창주	20,000
전	8	임헌표	10,000
자	9	김선영	20,000
자	9	박동권	50,000
자	9	유영선	100,000
기	9	이규홍	20,000
전	9	임세환고문	10,000
자	9	장덕영	500,000
방	9	진한종	210,000
자	9	최재일	20,000
광	9	서종남	40,000
전	10	고병만	50,000
방	10	김영갑	10,000
자	10	김창길	10,000
전	10	서호석	20,000
광	10	윤여갑	20,000
자	10	이경세	10,000
광	10	이기성	20,000
전	11	김용진	10,000
기	12	강태국	20,000
기	12	김병무	10,000
기	12	김홍국	20,000
기	12	남상구	20,000
기	12	라기원	10,000
기	12	박용진	20,000
기	12	서영환	10,000
기	12	송인찰	20,000
기	12	송치영	20,000
기	12	이승범	20,000
기	12	전종현	100,000
광	12	정승훈	20,000
방	12	조우찬	50,000
기	12	천명재	10,000
화	12	최성구	20,000
기	13	권은순	100,000
기	13	마평춘	5,000
기	13	양창석	20,000
기	13	오충연	20,000
화	13	이상태	20,000
기	14	남상복	20,000
기	14	송수헌	100,000
기	14	송장섭	20,000
기	14	오승준	50,000
기	14	유한균	20,000
기	14	이종업	10,000
기	14	임화섭	1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15	김래홍	100,000
기	15	남칠현	100,000
기	15	노영재	20,000
기	15	무기명	50,000
기	15	배진구	20,000
기	15	이재일	10,000
기	15	이중재	20,000
기	15	최훈식	20,000
배관	16	고창복	20,000
배관	16	오한선	20,000
전	16	김희곤	10,000
기	16	오선균	20,000
기	16	윤석길	20,000
기	16	이계천	20,000
기	16	이순재	20,000
기	16	이재흥	20,000
기	16	이창섭	20,000
배관	16	임재록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16	황선영	20,000
기	16	황창환	20,000
기	17	김병규	50,000
기	17	김종수	20,000
기	17	나준헌	2,000
기	17	송선호	10,000
기	17	윤영문	100,000
기	17	최상문	20,000
기	18	김범래	20,000
기	18	김영하	20,000
기	19	이재원	20,000
전	20	김양환	20,000
기	20	박경하	100,000
기	20	여명찬	10,000
기	21	김용근	10,000
기	21	문길수	10,000
기	21	박영준	10,000
기	21	박원종	10,000
기	21	배태철	10,000
기	21	신흥균	10,000
전	21	오주철	10,000
기	21	오흥석	10,000
기	21	유서열	10,000
기	21	유호문	10,000
배관	21	이경수	10,000
기	21	이규필	10,000
기	21	임현철	20,000
기	21	장명국	10,000
배관	21	장홍석	100,000
배관	21	정구철	10,000
기	21	정종배	10,000
기	21	진춘식	10,000
기	21	채성준	10,000
기	21	최동준	1,100,000
기	21	한석원	10,000
배관	21	함영일	10,000
배관	21	황경아	300,000
기	21	황희원	10,000
전	22	박종선	20,000
배관	22	이돈영	20,000
기	22	이병우	20,000
기	22	조영백	10,000
기	23	김영호	20,000
전	23	김은철	10,000
기	23	박광수	50,000
전	24	김용석	20,000
기	24	남광덕	60,000
기	24	박병희	50,000
기	24	김성기	10.000
전	25	김인문	20,000
전	25	김종민	20.000
기	26	김윤태	10,000
배관	27	김도진	20,000
기	28	강문식	10,000
전	28	신재광	20,000
기	30	이정근	10,000
기	31	권오진	50,000
기	33	이재상	20,000
기	33	전우창	10,000
전	34	공대성	10,000
기	35	김정규	10,000
설비	51	한찬혁	20,000
		김기영	10,000
		무기명	30,000
		윤성덕	10,000
		㈜신동양	100,000
단체		26회동문회	100,000
단체		기성동문회	50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기	18	유병각	50,000
금	18	장영옥	50,000
기	21	진춘식	50,000

한마음축제 성금

전	8	임헌표	100,000
기	14	임화섭	300,000
기	15	이재일	1,000,000
전	21	임동현	1,000,000

"사회적 약자 배려로 나누며 사는 세상 꿈꿔요"

황경아 대전시의원 동문사랑 계좌이체 동참, 발전기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며 사는 세상"를 꿈꾸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황경아(21회 대전시의회 시의원)동문과 "모든 사람이 더 따뜻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이언구(16회 청암대표) 동문의 삶의 철학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8월 4일 오전 10시 황경아(21회 대전시의회 시의원) 의원실을 방문하여 티타임을 갖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황경아 의원은 월1만원 동문사랑 모금 릴레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황의원으로부터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 받았습니다.

황경아 의원은 2004년 척추 장애인협회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사랑과 봉사 나눔 배려의 아이콘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받아냈고 드디어 올해 대전시 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나은 정책과 통큰 정치를 통해 대전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경원 총동문회장이 대전시의회를 방문하여 황경아 의원을 만났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멋지고 자랑스러운 우리 충기동문! 황경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승승장구를 기원해 봅니다.

– 서경원 총동문회장 –

KIA 남대전 기아 서비스
Movement that inspires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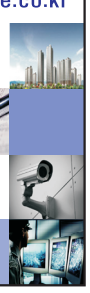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KOHANDS (주)코핸즈 대리점
GSA AIR DRYER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에어스타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그린플러그(주)
전기차 충전기 판매 · 시공
빠른 충전을 원하는 분들의 파트너
모든 종류의 전기차 충전기를
판매, 시공하는전문업체

대표전화 :1533-2269
김영훈 이사 (21회) 010-8813-6905
주소 : 충남 논산시 연사면 계백로 2561

Movement that inspires
(16회)
김 희 곤(男祈) 한밭대리점/카마스터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Tel : 042-863-5454 Fax : 0504-466-5838
Mobile : 010-3300-5838
E-mail : kng7587@hanmail.net
A/S센터 : 080-200-2000

쓰임사무용가구
대표 안 중 근 (21. 기계과)
010-5426-8867
대전시 서구 정림동로7번길 22(무지개종합상가2층)
Tel.(042)584-0114 밴드. 착한가구 홈페이지. 모두
사무용 [의자, 가구, 파티션]
조달전문업체(생산) 어넥스, 투템DESICTON, 월드플랜
렌탈, 주문제작전문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e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사회적협동조합
돌다리청림가
doldariro.com

돌청장애인보호작업장

기계과(15회)
서 경 원

생산(판매)품	카페운영, 빵, 우유 등 음료
직업재활훈련	제빵, 바리스타 등
전화번호 (주문)	Tel 042)272-1006 Hp 010-5455-7531
	E-mail gwseo590401@hanmail.net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돌다리로36(석교동)
후원계좌	하나은행/627-910017-54005 돌다리청림가 사회적협동조합(공익법인)

"사람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
그는 상상 속에만 있던 억만장자의 길을 갔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많은 부자'를 백만장자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백만장자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은 일찍이 백만장자의 꿈을 이룬 주인공 경제인 씨의
재테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978-89-92076-94-4 18,000원 경제인 지음 (윤시영 / 전기 / 15회) | 창과현 펴냄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505호)

(주)아성전기조명상사
Asung
대 표 표 광 열(11회)
010-9252-1685
LED조명기구, 전선류
나노 배선기구
위너스 배선기구
번개표 조명
각종 전기용품도소매 총판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 4(대흥동)
TEL : (042) 253-1625 / 226-1625
FAX : (042) 222-1625
E-mail : asung430@naver.com

충청도전지역 사무용유통, 인터넷 배송전문업체
신동양사무용유통
대표 이 용 태(기. 23회) 010-3370-0831
청주본점 : 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북로 656 T. 043-295-9722~3
대전지점 : 대덕구 대화로 50번길 52 T. 042-632-5500, 5502
천안지점 : 서북구 동서대로 176 T. 041-573-1100
당진지점 : 아산 인주면 인주산단로 23-38 T. 041-541-9722~3